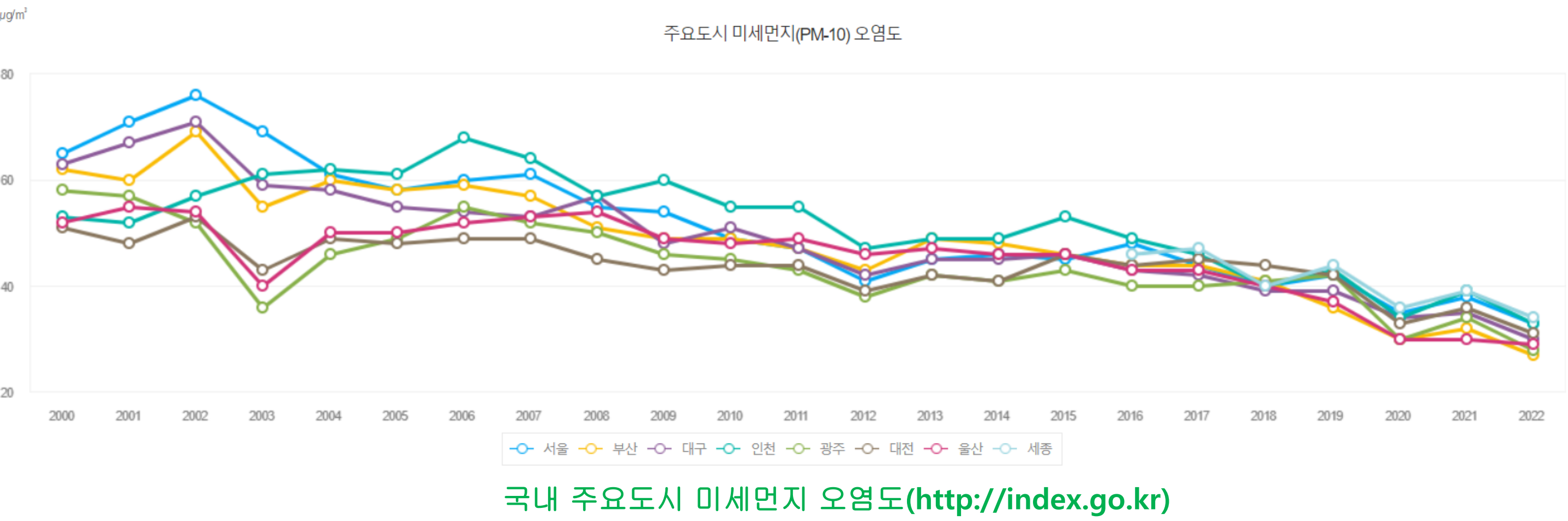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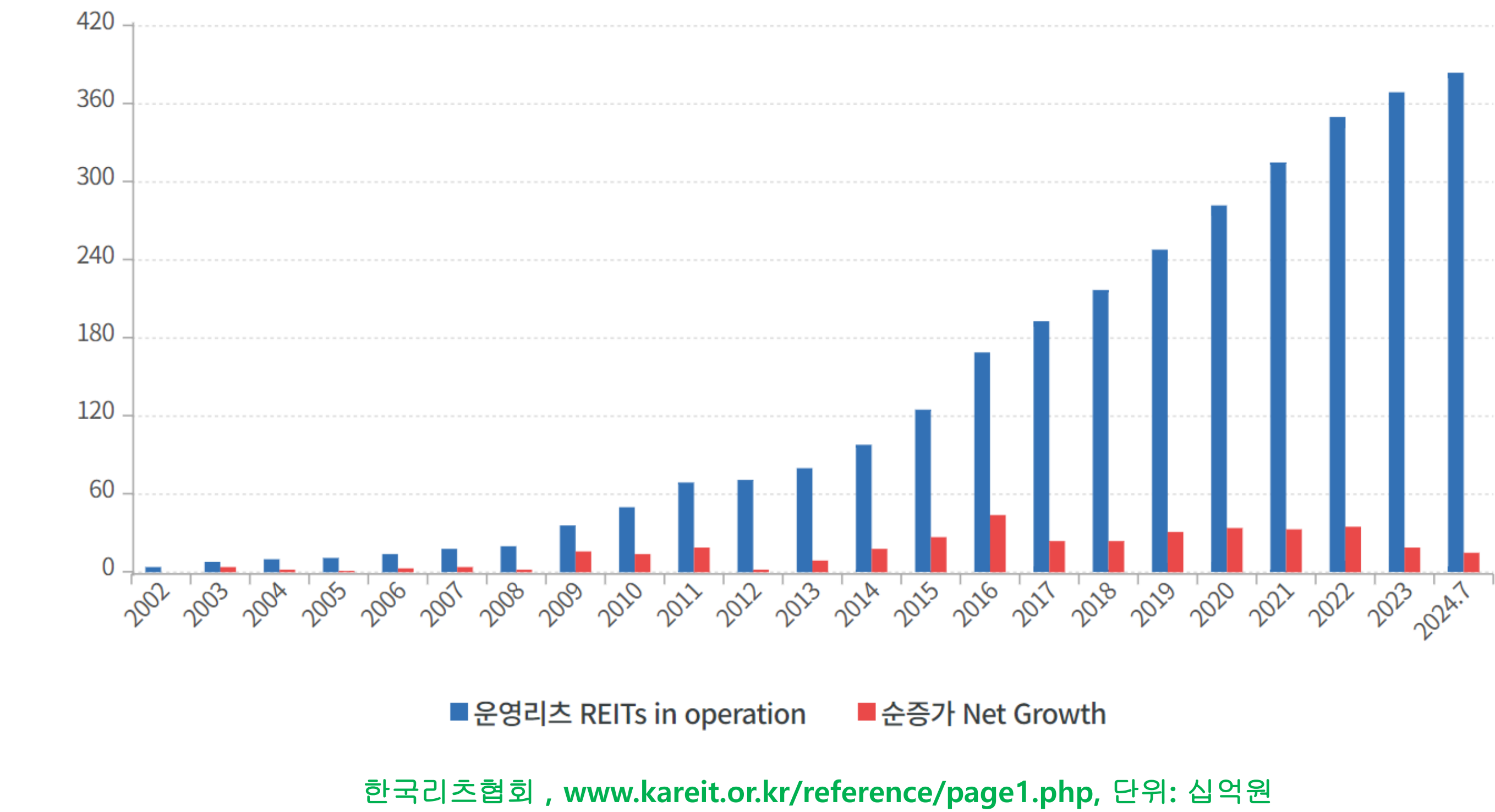


특수재난 핀테크시장 형성을 통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재난관리 현대화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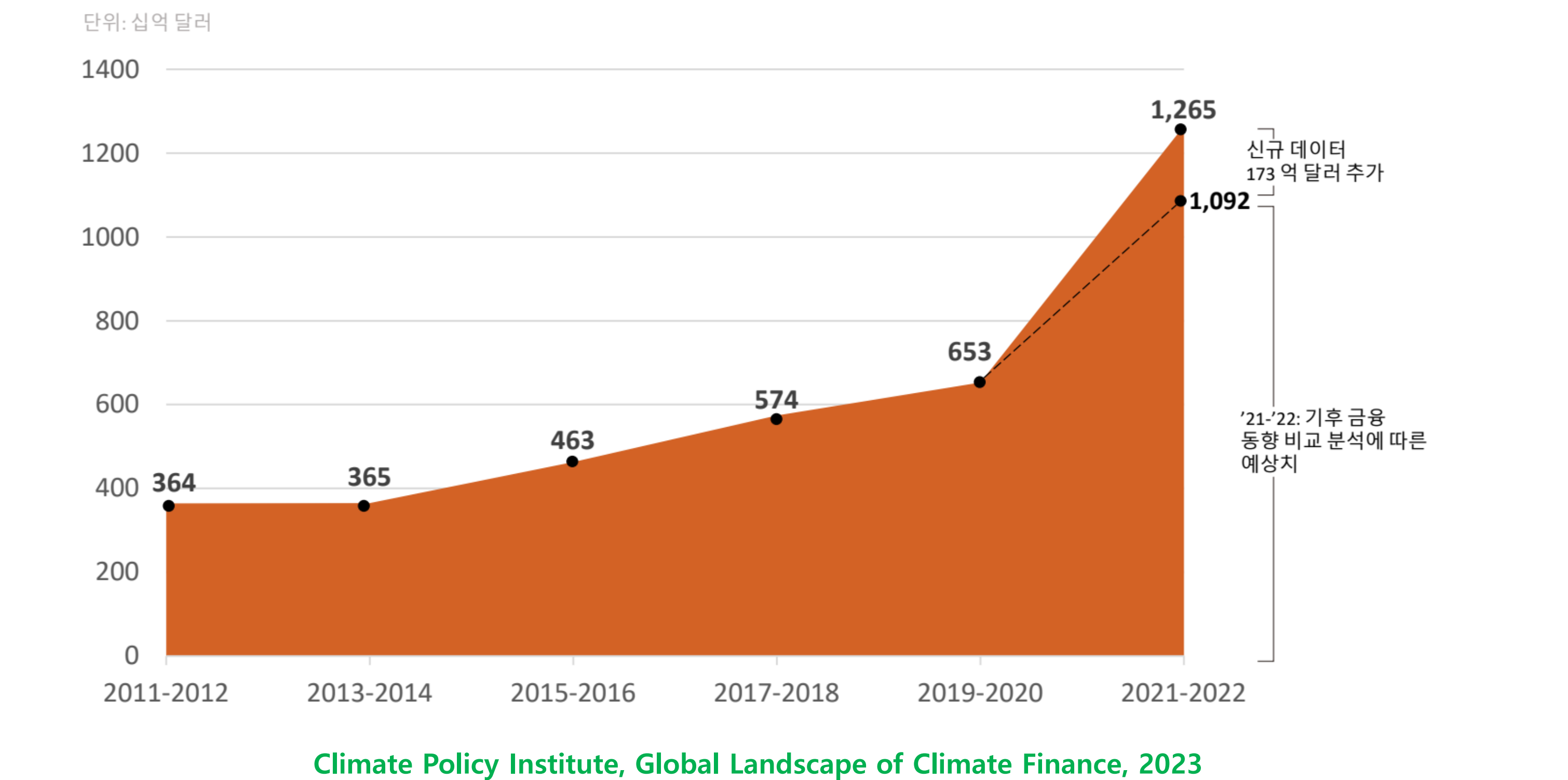
김성인, 국무조정실 전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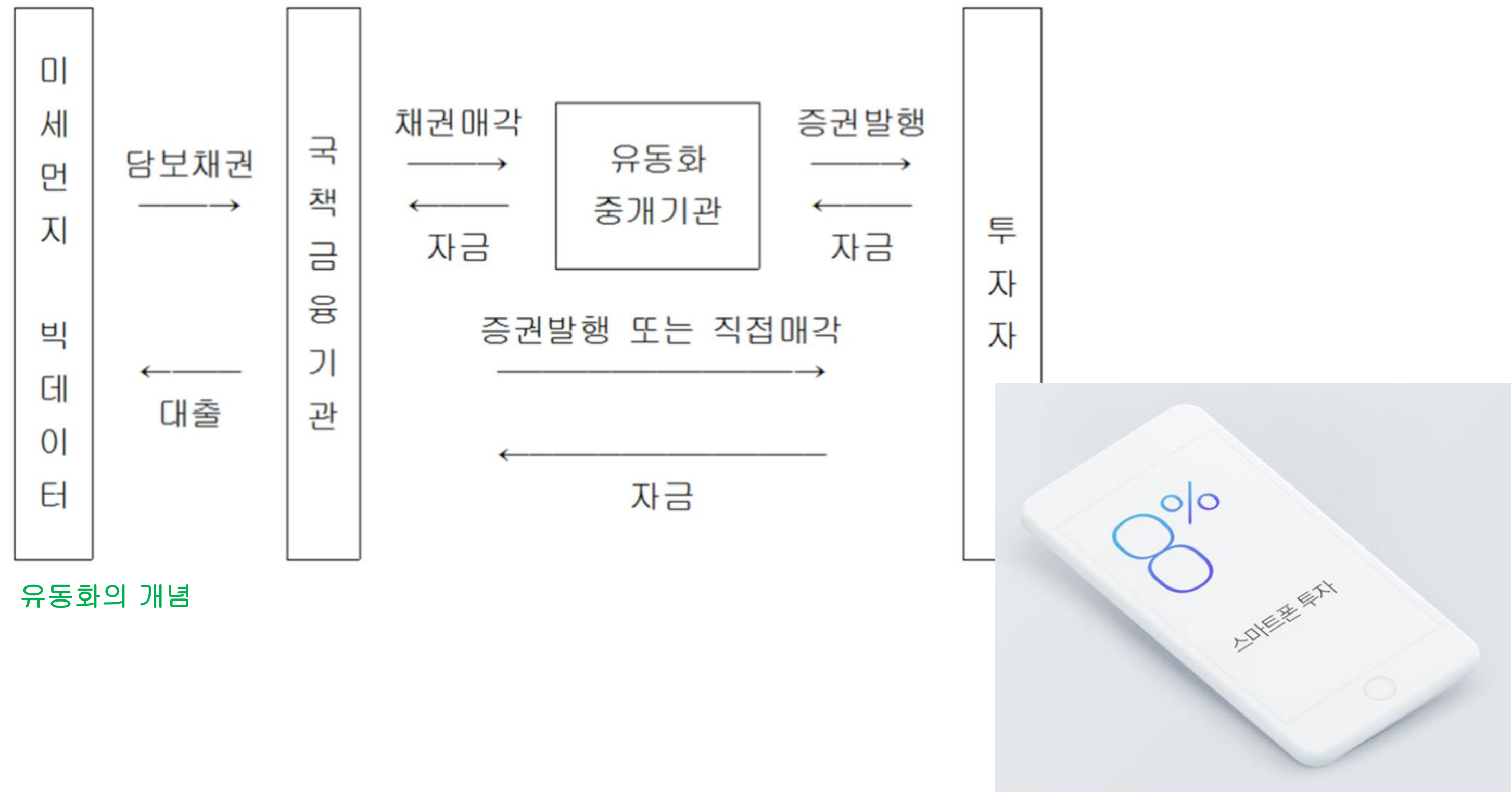
2018년 3월 25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21 $\mu\text{g}/\text{m}^3$ 로 관측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겨울과 봄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빈번히 발령된다. 2018년 3월 27일부터 지름 2.5 μm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기술개발 등에 2023년 기준 126억원을 투입 하겠다고 밝혔으나 미세먼지 발생원 파악에 대한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신성장동력 창출 사례 : 부동산시장(REITs)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실물부동산, 부동산개발사업,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관련 자본시장의 성장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리츠는 자산규모 면에서 400%를 초과하는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현재 375개 3,600억원의 규모로 증가하였다. 앞으로 미세먼지 등의 기후·기상시장 유동화를 통해 생성될 수 있는 핀테크와 금융상품의 투자전망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기후금융 시장은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주로 민간 부문의 투자 규모에 따라 증감한다. 글로벌 기후금융 규모는 2023년 현재 1조달러(추정치)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에너지기구(IEA)는 2015년 파리협약 이행을 위하여 향후 15년 동안 약 13.5조 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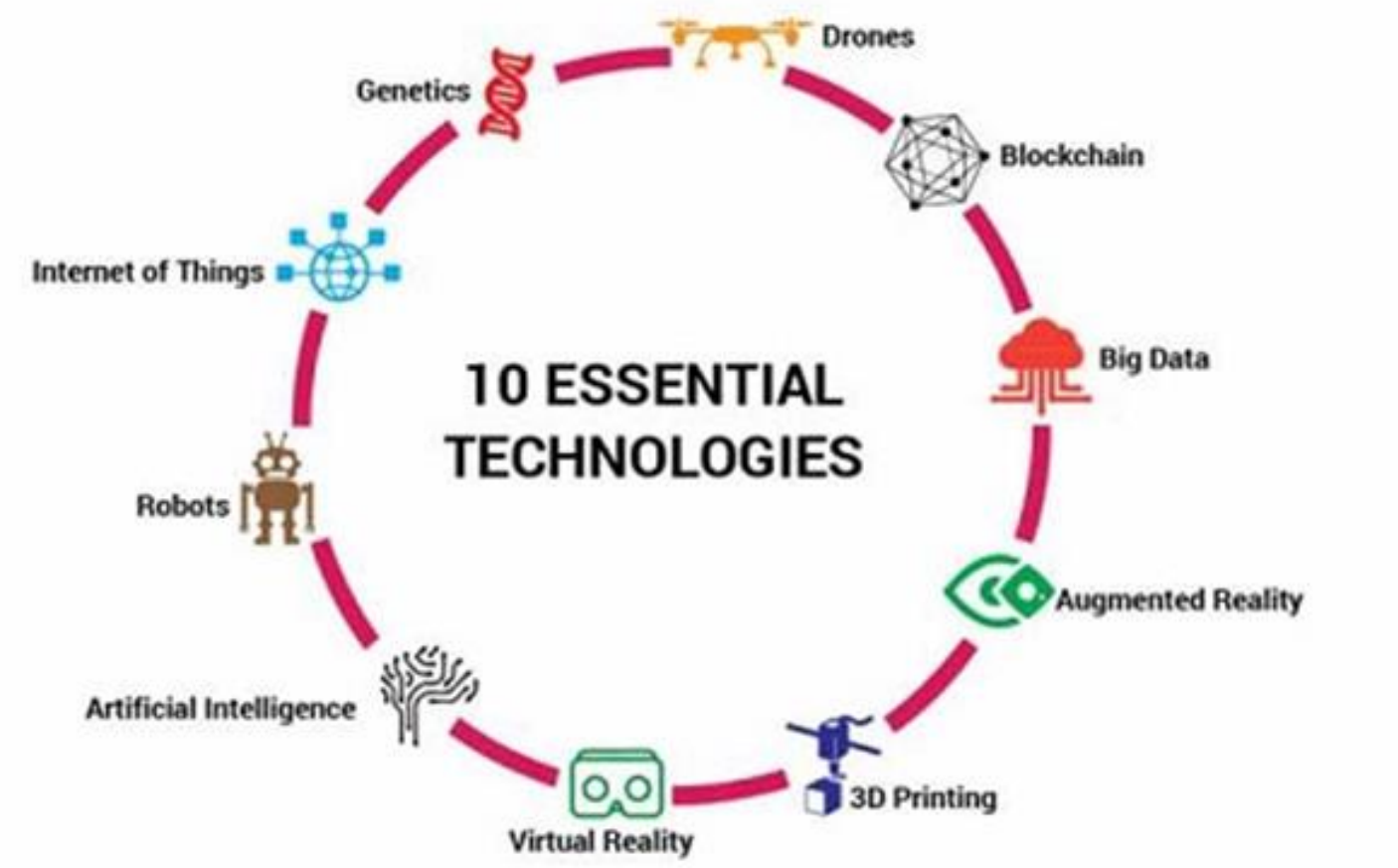


자산의 유동화 또는 증권화(securitization)란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기존의 유가증권의 형태로 가공하여 쉽게 유통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증권화방식 자산유동화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부동산, 채무, 회원권, 미술품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유동성은 떨어지나 시장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한 수익증권 등을 발행·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대상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은 신용평가기관의 엄격한 평가와 신용보강을 거쳐 발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권이나 채권보다 수익률과 신용등급이 높은 안전한 금융상품의 가치를 지닌다. 또한 핀테크의 형식을 빌려 스마트폰 등에서 간편하게 거래될 수 있어 기존 미세먼지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신규 고객의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다.

OpenAPI 정보		
	데이터데이터 다운로드	오픈API API 다운로드
분류체계	환경 - 대기	제공기관
관리부서명	대기정책지원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API 유형	REST	데이터포맷
활용신청	33760	키워드
등록일	2020-12-06	수정일
비용부과유무	무료	신청가능 트랙
심의유형	개발단계 : 자동승인 / 운영단계 : 심의승인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변경금지	
참고문서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OpenAPI 기술문서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data/15073861/openapi.do

관련	주요 법률	주무부처
금융업 전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금융지주회사법	
	예금자보호법	
	이자제한법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업권별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기획재정부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정보통신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법	과기정통부
	외국환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환경	개인정보보호법	환경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유동화를 위한 기초자산(미세먼지 빅데이터)은 연속성(지속적 데이터 제공) 및 변동성(시점에 따라 총량이 변화)이 충족되는 기초자산임

향후 미세먼지 데이터를 유동화시켜 금융·핀테크산업 부문에 진입하려면 관련 요건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계류중인 핀테크 육성법 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핀테크상품이 시장에 새로이 진출하려면 기상청, 환경부, 행안부, 금융회사(유동화 기관) 등에 적합한 핀테크(빅데이터) 산업과의 융합을 위한 기관간 비즈니스 제휴가 필요하다.

금융상품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진출한 REITs의 부가가치는 자산 * 수익률 * 부가가치 유발계수(2016년 기준) = 1,396억원에 이른다. 미세먼지시장의 핀테크산업 진출 시 부가가치는 기후변화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0.480, 2023년 기준) * 부가가치(리츠, 2016년 기준) = 670억원으로 전망된다. 위와 같은 경제적 효과 외에 정부 미세먼지 재해대처, 저감대책 및 R&D 예산 부족분 보완, 미세먼지 및 기후시장 인식 장벽 제거에 따른 신규 고객 유입, 2·3차산업(미세먼지 관련산업)에서 4차산업혁명(핀테크, 빅데이터)으로의 산업간 융복합에 기반한 성장 잠재력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